학교앞 문방구 '못믿을 먹거리'

사탕 65%서 타르색소 검출

광주지역 학교 앞 문방구에서 파는 사탕의 65%에서 발암 물질로 알려진 타르색소가 다량 검출됐다. 또 절반 이상의 과자가 중국·파키스탄 등 전 세계 22개국에서 수입되고 있지만 수입국·수입 절차 등이 제대로 표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지부장 최은순)는 "지난 10~11월 광주지역 112개교 앞 문방구에서 수거한 사탕 216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65%인 141개에서 식용색소적색 2호 등 타르색소가 발견됐다"고 18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올 9월부터 금지한 적색 2호도 23개 제품에서 나왔다. 뇌를 공격하는 흥분독소로 알려진 아스파탐이 포함된 사탕도 12종이나 있었다.

이들 제품에 포함된 청색 1호·황색 4호 등 타르색소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발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젤리 128개 제품 중 68개(53%·중복 검출 포함)에서도 황색 4호, 57개(44.53%·〃)는 청색 1호가 포함돼 있었다. 중국산 젤리인 '먹꼬먹꼬'에서는 비타민 C와 결합하면 벤젠 성분이 형성되는 '안식향산나트륨'이 들어 있었다.

껌 75개 제품의 16%인 12개에서는 식품첨가물로는 사용되지 않고 플라스틱 제품 첨가제로 사용되는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BHT)이 포함돼 있었다. /오광록기자 kroh@

추위도 녹이는 '사랑의 김장' 18일 광주시 동구 소태동 환경관리사업소에서 동구자원봉사센터 회원들이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에 쓸 김치를 버무리고 있다. 이날 담은 김치 800포기는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200세대에 전달된다. 이번 행사는 KT전남본부(본부장 송기유)·농협전남본부(본부장 이덕수)·동아병원(정재훈 원장) 등이 후원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따뜻한 송년회' 갈수록 늘어

성금 모으고 식사 대접…문화행사도 다채

연말을 맞아 틀에 박힌 송년회 대신 영화관람이나 불우이웃돕기 등 이색적인 송년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기관·단체가 늘고 있다.

광주 서구청 600여 명의 직원은 오는 27일 '정해(丁亥)년 송년 문화축제'를 갖는다. 상무지구의 한 복합상영관에서 단체로 영화를 관람하고 송년 시를 낭독하는 행사다.

광산구 직원들은 오는 31일 지역 관현악단과 성악가를 초청해 '미니 콘서트'를 열고 종무식을 갖는다.

광산경찰서는 오는 21일 송년회 대신 직원들이 낸 성금을 모아 상품권·생활용품 등을 구입해 소년소녀 가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동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20일 75세 이상 영세노인 120명을 초청해 '사랑의 내복'을 나눠준 뒤 축하공연을 갖는다.

화순 전남대병원은 오는 27일 통기타 가수·마술사 등을 병원으로 초청해 환자들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다.

앞서 광주 프라도 호텔은 지난 17일 '행복한 호텔 나들이'라는 행사를 마련, 독거노인 120명을 초청해 점심식사를 대접한 뒤 북구 노인복지관 공연단의 공연을 함께 관람했다.

현대 삼호중공업 마라톤 동호회 회원 50명은 1년간 각종 대회에 출전해 뛴 거리를 마일리지로 환산, 조성한 성금을 지역 유망 육상선수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대입 정시 '눈치작전' 극심 예고

첫 등급제 동점자 많아…26일 대혼잡 빚을 듯
인터넷 접수 마지막날 피하고 중복 접수 주의

20일 시작되는 2008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원서접수에서는 등급제 첫 시행의 여파로 여느 때보다 심한 눈치작전이 예상된다. 수능 등급제의 특성상 동점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정시모집 대학의 70%가량인 120여 개 대학의 원서 접수 마감일이 26일에 몰려 있어 마지막날 혼잡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지역의 대학 역시 전남대(25일)를 제외한 대부분 대학의 원서접수 마감일이 26일이다.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유웨이닷컴'(www.uway.com)은 "군별, 대학별 마감 일정을 잘 확인하고 눈치작전으로 인한 어이없는 실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원 가입은 꼭 수험생 본인이 할 것=원서접수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회원가입(무료)이 필수다. 하지만 종종 수험생이 아닌 부모나 친구의 정보로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인터넷 원서접수의 경우 회원가입자와 원서접수자가 동일해야 한다.

◇모집요강 꼼꼼하게 확인할 것=마감 시한에 쫓겨 원서접수를 하는 경우 지원자격이 안 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할 수 있다. 여유있게 접수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지원자격 등 요강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

◇군 중복을 피할 것=여러 인터넷 접수 대행 사이트를 이용했을 때 같은 군에 중복 접수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합격 후 취소된다. 단 일반대학교와 산업대는 중복이 가능하다.

◇접수 완료를 확인할 것=접수 완료가 안 됐는데도 끝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반드시 수험표 출력, 수험번호 확인 등을 통해 접수 완료를 확인해야 한다. 개인 정보가 잘 기재됐는지도 잘 살펴야 한다.

◇결제 때 필요한 것들은 미리 준비할 것=원서접수 사이트들은 대부분 결제 방식으로 신용카드·계좌이체·휴대폰 등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 만일을 대비해 결제수단을 두 개 이상 준비해두는 것도 좋다.

◇접수 후 제출서류 보낼 것=접수가 됐더라도 제출서류를 안 내면 접수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 접수가 끝난 뒤 제출서류 및 면접 일자, 실기 일자 등을 다시 챙겨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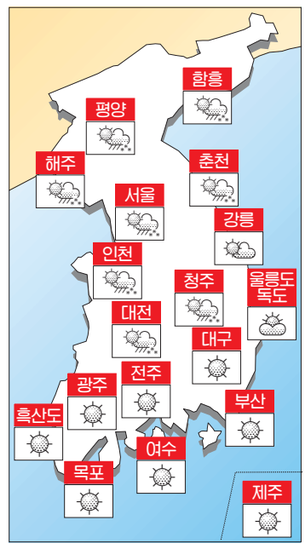
◇마감시한 놓치지 말 것=대학이 제공하는 실시간 경쟁률을 따져보다 접수 시간을 놓치는 경우도 있다. 인터넷은 1초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접속 폭주로 컴퓨터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으므로 마감일 전에 접수하는 것이 좋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투표하기 좋은 날

12월 19일 (음 11월 10일) ◇전국날씨

아침에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으나 대체로 맑겠다.

광 주	맑음	0~9℃
목 포	맑음	1~9℃
여 수	맑음	2~9℃
완 도	맑음	1~10℃
구 례	맑음	-3~9℃
해 남	맑음	-3~10℃
장 흥	맑음	-3~10℃
고 흥	맑음	-1~9℃
순 천	맑음	-3~10℃
영 광	맑음	-2~9℃
진 도	맑음	-1~11℃
전 주	맑음	-2~9℃
남 원	맑음	-4~9℃
흑산도	맑음	5~9℃



서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2.0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1.0~2.5m
남해서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0.5~1.0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1.0~1.5m

목 포 밀물 09:27 21:36 썰물 02:14 14:47
여 수 밀물 04:26 16:36 썰물 10:23 23:06

▲해뜸 07:35 ▲해짐 17:23 ▲달뜸 13:18 ▲달짐 01:49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0(목)	21(금)	22(토)	23(일)	24(월)	25(화)
날 씨						
최저/최고	1/10	1/10	2/9	5/8	1/9	2/9

"청원경찰도 고용보험 적용" 첫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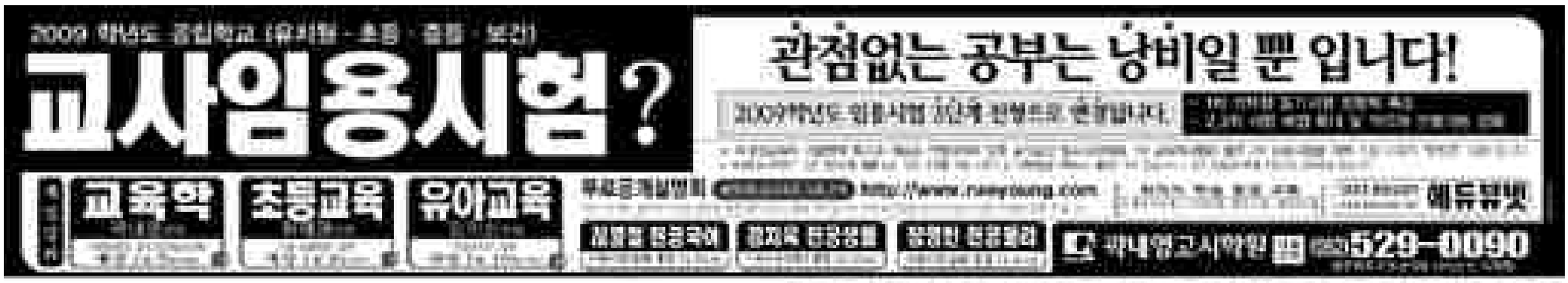
광주지법 행정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공무원 연금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금도 부담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진상)는 18일 광주시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6명·월드컵경기장 관리사무소 3명 등 9명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시에 부과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의 경우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파면·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고는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는 반면 청원경찰은 청원 고용주의 재량에 의해 구조조정이 허용돼 고용보험을 적용할 필요성이 훨씬 크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청원경찰 고용주가 고용보험료 부과 처분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첫 사례이자, 법원이 청원경찰도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유권해석한 최초 사례여서 관심을 끌었으나 법원은 결국 시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결은 민영화·비용절감·아웃소싱의 현상에 따라 청원경찰이 담당하던 공공·금융기관, 학교 등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분야를 민간업체가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원경찰의 신분·처우, 나아가 제도의 존치 여부 등에 대한 법리적·정책적 논쟁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